



영인 프런티어, 루머에 적극 대응, 수사의뢰 강수

<2019-12-06> 과학기술 바이오 선도기업 영인프런티어(036180, 대표이사 김준성)는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무자본 M&A와 주가조작설'에 대해 지배주주인 (주)제주스타투어와 (주)알투써밋에 문의한 결과,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의 주가하락과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이러한 보도자료가 유포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회사는 더 이상의 혼란을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 혹은 경찰에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생산과 토론방과 같은 인터넷 공간을 통한 확대재생산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회사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주주, 투자자들의 전화문의와 항의로 일부 지원부서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는 바, 투자자들의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